

## 전국 50개 공과대학에 공학교육혁신센터 설치

- 공학교육을 산업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

전국 주요 50개 공과대학에 공대 혁신을 주도할 공학교육혁신센터가 설치된다.

공학교육혁신센터는 작년 11월 산·학·관이 공동으로 수립한「공과대학 혁신 비전과 전략」에서 공대 혁신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제시된 것으로 각 공과대학은 공학교육혁신센터를 통해 대학의 핵심역량, 지역산업여건 등 제반현황을 분석하고 학내외 의견을 수렴하여 타 대학에 비해 비교 우위가 있는 특성화된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지역산업과 연계된 공학교육프로그램 운영(특성화학과 운영, 기업참여형 Capstone Design 등), 산업계 지향적인 공학교육시스템 개편(커리큘럼 개편, 교수 평가 및 보상제도 차별화 등) 등 공학교육 혁신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산자부는 2월14일 “2007년도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을 공고했고 금년도에 총 120억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50개 대학(혁신센터)에 매년 2억원씩 5년간 10억원을 투자하여 공과대학별 특성화 전략 수립 및 공학교육과정 개편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지원하고 인근 대학이나 유형이 유사한 대학을 연계하기 위한 권역별 거점센터를 선정( '07년 5개소 예정), 권역차원의 공동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을 별도로 추가(연 2억원)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산자부는 기존 공학 교육관련 지원사업(창의적 공학설계 등)을 개별 사업단위가 아닌 패키지 형태로 공학교육혁신센터에 지원함으로써 대학이 자체 특성에 맞는 최적의 프로그램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학교육혁신센터를 중심으로 공학교육 혁신을 본격 추진하는 대학이 정부의 재정지원에서 우대 받는 시스템\*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공과대학 혁신의 구심점이 될 공학교육혁신센터를 중심으로 대학 스스로 공학교육 혁신을 본격 추진함으로써 공과대학간 차별성 없는 백화점식 학과운영이 특성화에 기초한 차별화된 학과 운영으로, 이론 중심의 교육이 현장 위주의 교육으로 개편 되는

등 산업계 수요자 중심의 공학교육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 산자부, '일자리 창출, 한미FTA 체결, 석유·가스 확보매량장 170억배럴로 확대' 등 중점 추진키로

산업자원부(장관 : 김영주)는 금년에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산업에서의 일자리 창출과 이를 위한 기업의 투자 활성화, 균형발전 전성과의 확산, FTA 확대를 통한 산업과 무역의 경쟁력 강화, 에너지자원 자주개발역량 확충을 중점 추진키로 하였다.

수출과 내수의 확대 균형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무역 1조달러 달성 및 균형발전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① 실물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촉진, ② 미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균형발전 및 신성장기반 구축, ③ 무역 1조달러 달성을 위한 선진통상강국 건설, ④ 자원개발 및 효율증대를 통한 안정적 에너지수급시스템 구축을 4대 전략목표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실물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해 ▲투자활성화·혁신형중소기업육성, ▲지식기반서비스산업, ▲부품소재산업, ▲주력기간산업의 발전 등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산업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미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균형발전 성과 확산을 위한 시스템을 개편·강화하고 ▲바이오·나노, 반도체디스플레이, 로봇 등 미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R&D 및 표준화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무역 1조달러 달성을 위한 선진 통상강국 건설을 위해서는 ▲FTA 확대, ▲고부가가치 창출형 외국인투자 적극 유치, ▲통상협력 강화와 함께 ▲종합적인 무역촉진 로드맵을 수립하여 전략적인 무역정책을 전개할 계획이다.

안정적 에너지수급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해외자원 개발을 확대하고 ▲환경·효율·기술 친화적인 에너지 소비구조를 실현하며 ▲에너지정책에의 국민참여 활성화 및 에너지복지 본격화 등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에너지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